

KBS  + 김승일 · KBS 디지털인프라국 디지털품질관리부장

생사를 넘나든 안나푸르나 등정 생방송

- 전송장치 제작과 운용 -



11년 전 칸첸중가 생방송 시 내가 만든 배낭장비로 산악인이 도달했던 7300미터까지 성공했지만, 등정실패로 정상에서의 생방송도 실패했다. 그 당시 모든 방송 스텝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만 해서 너무나 아쉬웠다.

노하우가 있으니 자신감은 갖고 있었는데, HD 장비가 되면서 무게, 배터리 소모가 오히려 3배 정도 증가하여 난감하였다. 작년 가을시즌 대비 준비 때 휴대용으로 개조가 가능한 장비는 오토바이에 탑재해서 마라톤 때 활용하던 NEC 장비 1대 뿐이었다. 방송 욕심은 나는데 통달거리 시험결과 무지향론 300~500미터 전송밖에 되지 않아 실망이 컸다.



중계기술국 선후배의 노하우가 총 동원되어 초소형 패치 안테나로 지향성을 주고 등정 할 촬영감독에게 운용이 가능한지 적용시험을 거쳐 개조에 착수했다. 케이스, 볼트류, 방열판, 배터리 패널, 안테나 취부 베이스 등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아내어 제거하거나 개조했다. 카메라 선경도 온도 특성, 무게, HD 신호추출 등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전체적인 무게를 줄이려고 Wide 렌즈 취부도 망설이고 있다가 출발 며칠 안 남기고 신제품을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이런 과정은 실제 운용 할 촬영감독과 면밀히 검토했다.

안나푸르나로 출발 할 때 현장가면 변수가 생길 것 같아 바늘 10종 세트 2개, 실, 고무줄, 찌꺼기, 강철와이어 등 나름대로 생각하고 준비한 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사실 안나푸르나는 기술 측에서는 현장답사 한 번 없이 작년 등정실때 시 찍어온 사진만 가지고 가능하다는 확신 하에 준비된 어쩌면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었던 도전적 방송이었다.

베이스캠프까지 여정도 아주 험준한 지형으로 눈이 잠깐 녹은 기간에 등정 할 수 있어서 행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베이스캠프에서 HD 배낭장비 시험 운용결과 산소가 희박한 곳에 오니 촬영감독이 힘이 없는지 무거워서 장비를 배낭 2개로 분산 처리하여 무거운 부분은 셀파가 짊어지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고 난색을 표한다. 산소통도 현지에서 구해 온 것은 국내에서 시험한 것과 모양이 달라 배낭 무게중심에 문제가 생겼다. 배낭 분리, 무게중심 잡기는 모두 텐트에 틀어박혀 바느질 솜씨로 해결했다. 바느질 소문이 퍼져 진행을 맡은 유지철 아나운서가 모자에 KBS 로고를 부착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멋지게 해결해 줬더니 바느질 달인이라고 감탄한다. 결국, 내 바느질로 재킷에도 여러 개의 협찬사 로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정상에 오른 오은선 대장의 협찬사 로고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KBS와 태극기만 남아 역사적인 순간이 KBS 단독 생방송이 되었고 협찬사에서 상당한 항의를 받았다. 캠프에 있을 때 협찬사 로고를 그냥 붙이는 걸 목격했는데 다행히 바느질 도구를 그곳까지 갖고 가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선 등정과장이 전혀 안 보이는 지형이라 5100미터에 위치한 캠프1에 방송전진기지 구축이 꼭 필요했다. 산악 인들은 베이스캠프와 캠프1의 차이는 또 다른 세계라고들 한다. 이곳 까지 운송자를 보내는 데는 위험 감수와 더불어 방송전진기지를 운용 할 기술적 능력과 고산에 대한 적응력 모두가 뛰어나야 한다. 이번 안나푸르나 생방송은 중계기술국 인원과 각 부서의 유능한 용병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여기에 선발된 TV기술국 용순문 감독은 사내에서 자타가 공인한 적합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번 생방송을 겪고 나니 3000미터 이상은 다시 안 오르겠노라고 한다. 내 나이 55세인 늙은 방송인이 백업을 하고 있었고, 생방송은 무사히 마무리 됐다.

11년 전 칸첸중가 생방송 시 유일하게 컨디션이 좋다는 죄로 6200미터 방송전진기지에서 2박 3일까지 보낸 적이 있는데 방송기술인으로서는 공식적인 고산등정 기록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 같다. 그 기록 덕에 찌소리 않고 고소 컨디션이 안 좋은 용순문 감독을 돕기 위해 방송전진기지로 근무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이번에는 5100미터 캠프1을 3회 오르고 15일간 방송전진기지 구축과 운용을 했다. 첫 번째 캠프1 도전은 정말 힘들었다. 11년 전 생각만 하고 술선하여 나섰는데 경사도가 심한 바위 면에 자일이 500~600미터는 쳐있는 구간을 돌파해야 했다. 그런데, 힘이 부족하고, 발 헛디딜까 무서워 퇴직금 당겨 받아 헬기 불러 집에 와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캠프1에 올랐는데 이튿날 방송전진기지 구축 작업 중에 가장 스펙터클한 눈사태가 우리를 덮쳤다. 캠프1은 안전지대로 눈사태 기록이 없던 곳인데 워낙 멀리서 큰 눈사태가 발생하자 처음엔 우리도 구경하고 있다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 모두가 휩싸여 버렸다. 이 광경은 멀리 떨어진 베이스캠프에서도 목격되었는데 워낙 커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대단했던 눈사태였다.

그 당시 나는 풀 HD 동영상까지 되는 최신형 포켓 디카를 갖고 있었는데, 눈사태 순간 몸을 쳐 박고 이런 장면은 꼭 한 번 찍어보겠다는 생각에 머리 위로 디카만 살짝 내밀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확실히 찍겠다는 일념에 레코드 버튼이 반복해서 눌리는 바람에 역사적인 풀 HD 디카 동영상이 푹 푹 끊기고 말았다.

그렇지만 눈사태가 덮치면서 방송용 카메라는 렌즈가 막혀 무용지물이 되었고 나는 눈사태가 지나갈 무렵 내 디카의 렌즈에 덮인 눈을 손가락으로 파내면서 셀카로 주변을 찍은 게 아주 희한한 영상물이 되었다. 거대한 눈사태가 우리 일행을 덮치는 순간까지는 방송용 카메라, 그 이후는 내 디카 영상물을 붙여 편집하니 내가 커다란 고글을 쓰고 눈을 뒤집어 쓴 채 망연자실한 상태로 방송용 카메라 렌즈의 눈을 닦아내며 혼신의 영상을 완성한 것처럼 보여져 세계적 영상물이 되었다.



작년에 안나푸르나 등정에서 눈사태를 찍던 VJ가 발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는 텐트만 망가졌다. 다행히 인명사고 없이 인생에 한 번 구경하기 힘든 눈사태 영상물을 완성하였다. 그 당시 이 영상은 방송이 끝나고 하산한 후에 방송해야 가족들이 걱정 안 할 테니 숨겨 두자고 했는데 하루를 못 넘기고 세상에 전파를 탔다. 이 영상을 촬영한 홍성준 감독에게 당신은 역사적 영상물을 촬영했기에 언젠가 유명인이 될 수도 있으니 내 등산복에 1호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받아 놓았다.

정상 등정 시는 촬영감독이 힘에 겨워 무전에 제대로 응답을 못하고 캠프1에서 망원 촬영도 안개 때문에 쓸 그림이 없어 방송사고 직전까지 가는 이슬아슬함이 있었다. 장비 고장은 아닌지 애태왔는데 정상 부근 그림을 달라고 거의 애걸복걸 하던 차에 선명한 그림이 들어왔다. 그 순간의 기쁨과 정상까지 HD 생방송이 완성되는 순간의 가슴 벅참은 지금도 몽클하게 한다. 왜냐하면, 과거 에베레스트 아날로그 생방송을 성공시켰던 NHK는 수년간 엔지니어를 훈련시켜 7500미터까지 기지국을 구축하였고, 베이징 올림픽 때의 중국은 여러 개의 기지국을 정상에 이르기까지 구축하여 생방송을 성공시켰지만 카메라 렌즈가 습기를 머금어 뿌연 화면이었다. 우리는 HD에 깔끔한 화면으로 생방송되었는데 이런 과정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일궈낸 성과였다.



또한, 우리는 해외 사례처럼 그럴만한 인력이나 장비가 없었기에 등산 용어로 알파인 스타일로 배낭에 모든 장비를 장착하고 산악인과 함께 이동하면서 생방송을 해서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성공시켰기에 그 기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햇빛이 강렬해 얼굴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고온과 7500미터 이상에선 제트기류에 의한 영하 40도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환경에서 인간과 장비가 조화를 이루게 한 방송기술의 노하우가 스며든 작품이다.

그 주역들을 소개하면 베이스캠프는 중계기술국 소속으로 영상을 맡았던 박용권, 황수택 감독, 음향 막내 엄민호, 선임감독 김환홍, 통신은 보도기술 유승영, 전력 광주충국 박승찬. 캠프1은 TV기술국 송순문, 방송기기보전국 김승일이 혼연일체가 되어 역사적인 생방송을 완성하였다.

